

“금리 노마드族 오세요” 저축銀 최고 4.9%, OK?

(높은 이자 찾아 거래 은행 옮기는 가입자)

(OK저축銀 'OK VIP 정기적금')

연 3% 이상 예·적금 출시 잇따라
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금리 쑥쑥
단기 적금, 특판상품 고려해 볼 만
중도 해지시에도 약정 금리 지급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구분	저축은행	상품명	세전이자율(%)
예금상품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2.92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2.91
	키움에스저축은행	SB특정기예금	2.90
적금상품	조흥저축은행	정기적금	3.10
	금화저축은행	비대면정기적금	3.00
	솔브레인저축은행	쏟쏟한정기적금	3.00
특판상품	OK저축은행	OK웃샷! 정기예금*	2.70
	삼정저축은행	정기예금*#	2.10

*6개월 만기 기준. #24개월 연 2.9%·12개월 연 2.8%.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공시 금융상품한눈에

#.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 A(33)씨. 최근 급여계좌 은행과 연계해 놓았던 적금이 1년 만기가 되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다. 적금으로 모은 돈은 500만원. 그러나 시중은행을 통해 저축한 500만원에 붙은 이자를 보고 실망한 A씨는 가입기간도 짧고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을 눈여겨 보고 있다.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맞춰 0.1%포인트에도 저축상품을 갈아타는 ‘금리 노마드族(族)’이 늘자 저

축은행이 속속 연 3%대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만기 정기예금은 연 2.65%, 정기적금은 2.71%를 제공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중의 KB국민은행(2.0%)이나 대구은행(1.70%)보다 0.70~1.00%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은 셈이다.

금감원 금융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4일 기준 가장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상품은 페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으로 연 2.92% 금리를 제공한다.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상품이 연 2.91%, 고려저축은행의 SB특정기예금(비대면) 정기예금이 연 2.90%금

리를 제공해 뒤를 이었다.

정기적금 상품의 경우 드림저축은행의 특특정기적금과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이 각각 연 3.10% 금리를 제공해 가장 높았다. 이어 금화저축은행 (e)정기적금과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쏟쏟한 정기적금이 각각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만약 우대조건이 충족된다면 OK저축은행의 OK VIP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OK VIP 정기적금의 경우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 최대 연 4.90%의 금리를 제공한다. 아주저축은행의 삼삼오오함께만든적금은 5인 이상이 동시 가입하면 연 4.50% 금리를 제공한다.

짧은 가입기간에도 약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원한다면 저축은행 특별판매(특판)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판 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은데다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한 금리를 지급해 주기 때문이다.

OK저축은행은 여자프로농구단 네이밍 후원 기업으로 ‘OK웃샷!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내놨다. 지난 29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예치기간은 6개월이다. 연 2.7%의 확정금리(세전)를 제공하며 총 1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삼정저축은행도 수리지점 개점 10주년을 맞아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제공한다. 오는 1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200억원 한도로 제공된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할 예정이다. 특판 조건은 계약기간 24개월 연 2.9%, 12개월 연 2.8%, 6개월 연 2.1%이다.

저축은행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도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예금보호 대상이다”며 “요즘은 저축은행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통장을 만들 수 있어 금리에 민감한 고객들은 0.1~2%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신재생에너지 연료 시설에 PF 투자

롯데손보 등과 1370억 펀드 조성

IBK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인 ‘목재 펠릿’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 롯데손해보험 등 기관투자자는 총 1370억 규모의 ‘키움고성바이오 매스펀드’를 조성하고, 신영포르투가 경남 고성에 건립하는 목재 펠릿 제조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펀드와 대출을 포함해 총

85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펀드 투자기간은 8년 6개월로, 운용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맡는다.

목재를 압축 성형한 목재 펠릿은 석탄 등 다른 화력발전 연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정도가 낮아 탈(脫)석탄 가속화에 기여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다.

이번 투자를 통해 세워지는 공장에서는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만을 활용해 목재 펠릿을 생산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 ‘1사 1교 금융교육’ 추가 참여 접수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1사 1교 금융교육’ 추가 참여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과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7272개교(전국 초·중·고교의 61.9%)가 4537개 금융회사

분·지점과 결연을 맺고 있다.

참여대상은 현재까지 1사 1교 금융교육 결연을 신청하지 않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이다.

학교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 지점은 해당 회사의 본점에 신청하고, 본점이 일괄 취합해 금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손님 불만제로 실천”... 우수 사례 시상

KEB하나은행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공모전’

KEB하나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신축 본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 본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립코자 지난 8월 출범한 하나금융그룹의 ‘손님불편제거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다.

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 까지 진행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총 14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서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489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127건은 이미 시행 완료했고, 278건은 개선 진행 중에 있다.

KEB하나은행은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손님과 직원이 낸 아이디어를 심사해 선정한 결과를 경영 전반에 즉시 반영했다.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제안 내용을 주려 ▲인터넷뱅킹 간소화 ▲비대면 처리 확대 ▲알림 서비스 강화 ▲여성취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왼쪽 세번째)이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접수된 손님불편 아이디어 중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손님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급절차 축소 등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 우선적으로 개선해 손님불편을 제거했다.

이날 개최된 ‘손님불편제거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식’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손님 11명과 직원 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은행장이 직접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주재해서 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챙긴다는 점에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양주 KEB하나은행장은 “손님들과

직원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KEB하나은행을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제안해주시면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불편제거위원회를 통해 손님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도, 관행 및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사전에 적극 제거함으로써 ‘손님의 기쁨’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

“보험, 갈아타기보단 계약 변경이 유리”

금감원 Q&A

보험 변경 체크포인트

Q: 얼마전 기준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설계사가 추천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기존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갈아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가능하다면 보험은 갈아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

서 금전상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지금까지 낸 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기존 보험을 계약했던 때보다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동일한 보험으로 갈아탔더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험가입금액을 낮추거나 기존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보장받고 싶어지는 경우 등에는 보험을 갈아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험을 갈아타기 보다 기존 보험계약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변경을 통해 보험 가입금액이나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 특약을 없애거나 새로운 특약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별 또는 상품별로 보험종목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갈아타야 한다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보험설계사 등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권유할 땐,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험료, 보험기간, 보장내용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면서 안내해야 합니다. 이 비교 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고려해 보험계약을 갈아타실 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사전 수강 신청 필수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